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05
----------	------

발의연월일 : 2025. 2. 17.

발 의 자 : 박균택 · 맹성규 · 김주영
박상혁 · 김승원 · 양부남
서영교 · 한민수 · 추미애
박지원 · 박정현 · 박해철
한준호 의원(13인)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소재 미확인으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판이 길어지고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실제 통계와 연구에서도 형사 장기미제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난 바 있음.

한편, 이를 악용하여 집행유예 중인 형사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사법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3조의 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의 제4항 신설 등),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제1항 중 “제23조 본문에”를 “제23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의 계속적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 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u>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 ① -- ----- ----- ----- ----- ----- ----- ----- ----- ----- ----- ----- . < <u>단서 삭제</u> > ② 제1심 공판절차에서 <u>공판기일에 출석하였던 피고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u> <u>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의하여 다시 정한
<u><신 설></u>	

<신 설>

<신 설>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 본문
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
석할 수 없었던 경우 「형사소
송법」 제424조에 규정된 자는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재심청구인
(再審請求人)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

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리는 기
일에 대한 소환장 송달은 서류
를 우체에 부치는 방법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
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은 사형, 무
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
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3조의2(재심) ① 제23조제1항,
제2항, 제4항에-----

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 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 ----- -----. ② ~ ⑦ (현행과 같음)
---	---